



“복음을 선행하는 우리들”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206-362-2278 | 연령회: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홍광철 세례자 요한

## 예수님 편에 선 우리가 받게 되는 상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일을 한다면 그의 편을 들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마르9,41)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잘 것 없는 물 한 잔이라도 주님의 사람이기에 주님의 사람에게 베푸는 이에게는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으며 먼 거리를 여행한 이에게는 시원한 물 한잔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별 것 아니지만 그는 그 물을 통해서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별 것 아니지만 그것이 형제자매들에게는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물 한 잔 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잘 해 보려고 하다가 마음 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상대방에게 필요한 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작은 양보와 너그러움, 그리고 다가감일 것입니다. 용서를 청함과 화해의 악수일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편만한 배려와 웃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을 어려워하는 형제자매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나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혀 상처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신자와의 관계는 좋으면서도 신자와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비신자와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고, 신앙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신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또한 물 한 잔 주기를 꺼려하는 것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작은 것 하나 내어줌을 통해, 하늘의 큰 축복을 얻게 됨을 반드시 명심합시다.

### 미사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저녁) 오후 7:30  
 (주일) 오전 8:00 / 10:00  
 오전 11:30 (학생)  
 오후 6:00 (청년)

**월** 오전 10:00  
**수/목/금/토** 오전 10:00  
**화/수/목/금** 오후 7:30

### 성사 안내

**환자 봉성체** 매달 첫 목요일 오전  
**병자성사** 구약장을 통해 신청  
**성체강복** 매달 첫 목요일 저녁미사 후  
**예비신자교육** (주일) 오전 8: 20

### 학교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00  
**YG(고등부)** (주일) 오전 10:00  
**한국학교** (금) 오후 7:00  
 (토) 오전 9:30  
**안드레아 문화대학** (주일) 오후 1:00-4:00

##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사랑할 때, 실천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의로움을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 하고 분노하기도 더디 해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야고1,19-20)

인내의 열매를 맺은 이들은 자신 안에서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조절할 줄 압니다. 부당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누구나 속에서는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인내의 열매를 맺은 이들은 그 분노의 화산의 입구를 기도와 자비와 의탁이라는 무거운 돌로 눌러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의로움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이들은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공손하게 하느님의 귀한 자녀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래서 야고보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벗어 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야고1,21)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는 내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

활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신심은 하느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려는 신앙인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심을 가진 이들은 하느님만을 향하려 하며,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려 합니다. 그리고 희생과 봉사, 기도와 신심 생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신심이 깊다고 생각하면 서도 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신심은 헛된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야고1,26-27)

나의 신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귀한 자녀인 내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인내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내가 되어 봅시다.

## 열정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하느님을 위해 근본적 결단을 내리며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칠 원의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었고, 순교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외국인들과 교섭을 한 것은 내 종교를 위해서였고 내 천주를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마태16,24-26)**

신이 예수님께서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림을 통해서 충만을 얻게 되는 것도 잘 알고 있기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포기할 것들이 종종 생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지, 미사에 참여할 것인지, 애덕을 실천할 것인지..., 그렇게 신앙을 선택하면 그 시간에는 다른 것은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포기함 없이 순교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모든 욕망을 억제하고 하느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많은 것을, 심지어는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을 뛰어 넘어 순교하고자 하는 자신의 원의까지도 포기해야

만 했습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나는 순명으로 이렇게 얽매어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였던다면 지금은 조선의 내 전교지방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천국의 빨마 가지 위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다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신앙생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순교자들의 열정이었고, 내가 본받아야 할 순교영성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울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의탁해야 만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자

## 신앙에 대한 확신

순교자 성월에는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고, 일상 삶 안에서의 확신 있는 삶을 본받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

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

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1ㄴ-39)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살아갑시다.

바오로 사도처럼 그렇게 굳은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 공동체 소식

### 목주기도 성월(10월) 기도 안내

• 목주기도의 밤: 10월 30일(화) 저녁 7:30  
 기도: 매일 목주기도 10단 봉헌  
 지향: 대자녀들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청하며

- ① 대자녀에게 신앙 권면하기
- ② 대자녀와 주일미사에 함께 참여하기 1회
- ③ 대자녀들 개인별로 함께 식사 1회 하기
- ④ 대자녀와 함께 목주기도의 밤 행사에 참여하기

### 목주기도 봉헌 방법

• 매주일 성당 앞에 있는 목주기도 봉헌함에 구역과 봉헌한 목주기도 단수를 적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리하여 구역별로 통계를 내 드리겠습니다. 목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매일 목주기도 20단을 봉헌해 봅시다.

### 첫영성체반 모집

- 대상 : 2018.9월 3학년~8학년까지
- 교리시간 : 주일학교와 동일
- 등록비 : \$70.00
- 부모 첫모임 : 10/7 10시 8시 성가대방
- 문의 : 이승현 대건안드레아 신부님  
 박선영 선영아네스 수녀님

### 온라인 신립금 안내

• 온라인으로 교무금과 건축기금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신립하시기 전에 사무실에서 가정번호를 확인하신 후에 입력해 주시면 정확하게 입금이 결제될수 있습니다.

<http://osvonlinegiving.com/4529>  
 많은 이용 바랍니다.